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8. 12.(월) 10:00 < 8.12.(월) 석간 > 배포 2024. 8. 9.(금)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 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입찰 가점 부여, 지역 청년 채용 등으로 국민고용 창출·지원 추진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기공사업체의 국내인력 양성 · 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 부여

** 송전탑 공사현장(동시다발적 시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 고용 추진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2-2110-4067)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서기관	임태섭 (044-203-39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